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每月 初日發行)

<협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科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93年度 新年辭

多事多難하고 不況이 겹쳤던 壬申年도 大過없이 보내고 文民政治時代가 개막되는 希望찬 새해 癸酉年을 맞이하게 되어 모든 會員任들의 계획하는 事業이 기필코 成就되시기를 손모아 祈願하는 바입니다. [癸酉元旦]

계약재배 확대실시 및 中央共販場 운용 改善으로 生産者 所得 直結

◇ 宋景太 會長

지난 한해는 정말 어렵게 넘겼습니다. 國內的으로는 總選, 大選등 새로운 韓國時代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국민이 신경을 쏟았고 國際的으로는 무역保護主義의 强勢로 因한 수입開放압력속에 경제적不況이 계속되어 萬余個에 이르는 中小企業이 도산되는 아픔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하 모든 會員은 이러한 와중을 슬기롭게 넘기므로서 오늘날 또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되어 새로운 포부를 펼쳐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산하 各級所長任들과 生藥會員의 盤援과 德分으로 대과없는 協會總括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나 送年辭에서도 言及한바 있듯이 諸般未治点을 補完하여 93年 새해는 協會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하여 여러會員任들과 함께 시대흐름에 적응해 나가면서 도약하고저 각오를 새롭게 하는 바입니다.

이제 本人은 제9代 會長 잔여任期를 名譽롭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어떤 口頭禪보다도 實績위주의 업무추진에 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산하 生産會員 및 農民들에게 보다 낳은 보람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펼쳐나갈 作定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生藥生産者에게 직접적인 所得이 보장될 수 있는 계약재배를 과거 3年의 경험을 살려 착실히 확대 실시할 계획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는 昨年度에 실시한 계약재배 수확품을 빠짐없이 수매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삼도 시호는 60%정도, 황기는 50%정도 수매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2月末까지는 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사 일부품목이 그동안의 시세상승으로 납품을 기피하고 외부누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산자소득 보호에는 보람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보다 많은 品目과 面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2大農業新聞에 弘報될 것임으로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난해에 비축한 安定基金은 全體生産者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규모에는 절대미흡이라고 생각되지만 可用범위내에서 계약재배와 수급조절에 집중 활용하여 生産者소득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저 하오니 이점 十分이해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이제 本會가 直營하는 中央共販場도 성년을 맞이하게 되어 흑자경영시대로 進一步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系統出荷하는 去來者(會員 및 一般生産農民)의 소득보호에 直結되도록 결재제도의 改善과 판촉활동을 보다 迅速化하여 믿고 去來할 수 있는 범생약거래장으로 활성화 조치하겠아오니 많이 活用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네째는: 本會기본기능중 주요항목의 하나인 生藥의 硏究및 生産指導를 보다 活性化하기 위하여 生藥分野 유수한 學者와 산하재배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生藥硏究會員會를 편성 완료하고 지난 1월12일 1次모임을 갖고 기본硏究方向 및 기능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앞으로의 진로를 각기 복안하여 제2次모임에서 확정짓토록 한바 있습니다. 2月中 中央理事會에서 이 案이 成案되면 뒤이어 硏究委를 召集 諸般안건을 확정 發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작 發足시킬 계획이였으나 物的 人的요소의 미비로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으나 수입개방시대에 적응하는 국제경쟁력向上의 시급함을 인식 늦은감이 있으나 實踐단계를 압축하고 있음으로 今年中으로는 기반이 정립되어 生産者들에게 좋은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行政的 具體事業方向은 今年度事業計劃에 포함 配付될 것임으로 紙面상 여기에서는 생략하오니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本會도 유일한 生藥法人體로서 24年의 경륜을 쌓아 왔기때문에…… 조직체계나 자금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올해에는 이렇한 미비사항을 보완, 일면 극복하면서 本然의 임무수행에 하자없는 기반을 이룩하는데 살호긴밀한 협조와 변함없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希望찬 새해와 더불어 任職員一同 및 各級分事務所長, 그리고 모든 生産會員任들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事業, 일취월장하실것을 축원하면서 新年人事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회장 宋景太 드림

連載 韓方순례 〈37〉

〈續〉

그러나 이같이 으젓한 군자의 자세는 아무리 정신이 군자의 도를 뛰어 넘어 있어도 병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역시 군자의 도도 건강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으젓한 군자의 자세와 건강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어진다.

사실 인체의 기능이 결함을 가질 때 이는 체형으로 나타나고 인체의 기능이 쇠하면 당연히 체형의 변화를 초래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체형을 통해 인체기능의 상태가 점검도 되며 또는 결함된 인체의 기능은 체형을 교정함으로써 치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체형과 기능의 상관관계에 따른 수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머리는 정신을 통솔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머리를 수그린다거나 하여 눈을 아래로 내려뜨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로서는 눈이 바른 위치를 못갖기 때문에 정신의 올바른 활동이 저해 당하기 때문이다.

②등은 흉중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등이 굽어 어깨까지 이에 따라가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등이나 어깨가 굽으면 폐장을 압박하여 그 기능을 손상케 만들기 때문이다.

③허리는 신장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허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건강상 큰 손실이 온다. 왜냐하면 허리의 회전이 잘 안되면 신장이 피로하기 때문이다.

④무릎은 힘줄을 관장한다. 그러므로 무릎의 굴신이 원활히 되지 못하도록 걸음을 걸을 때 허리까지 구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상태는 더욱더 근의 활동을 피로케 하기 때문이다.

⑤골은 골수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오래동안 서 있는 것은 피해야 하며 걸음을 걸을 때 흔드는 버릇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작은 골격을 피로케 하여 골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상에 본바대로 건전한 자세와 보행 즉 머리를 똑바로 들고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발을 성큼성큼 뛰어놓는 것은 사람의 품위를 높이는데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대 불가결의 요소임을 알게 되었으리라.

다음은 좀더 구체적으로 체형과 건강과의 관계를 적어보기로 하겠다.

(祝)

發展

지부장 김성배 (이천군사무소장겸직)
포천군 사무소장 이인기
양평군 〃 송만용
동두천시 〃 황정근 (공판장장겸직)
가평군 〃 이인태
용인군 〃 최윤식 (공판장장겸직)
연천군 〃 박헌주
구리시 〃 이성덕
평택군 〃 정기효 (공판장장겸직)
평택시 〃 권현철 (공판장장겸직)
의정부시 〃 허남운
성남시 〃 구연식 (공판장장겸직)
경기도 공판장장 최병목
양평군 〃 신현석
이천군 〃 오영주
가평군 〃 한인옥

◇ 경기도지부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1993년 1월 20일